

# 참복음의 파수망대로 거듭나야 할 갈라디아교회 -복음으로 여는 갈라디아서- 사무엘하 22:3, 갈라디아서 2:20

정윤돈 목사님

\* **삼하22:3**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지요 나의 방패지요 나의 구원의 뿔이지요 나의 높은 망대지요 그에게 피할 나의 파난처지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 **갈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주셔서 오직 하나님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 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할 미션과 내가 붙잡고 무한세계로 도전해야 할 도전의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어떻게 복음의 영적인 플랫폼, 복음적인 영적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 핵심이 바로 오직 믿음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해결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란다.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한 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시요, 산성이시요, 구원의 뿔이요, 망대이시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방패, 산성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는 척 해야 하고 싸워야 한다.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 산성, 구원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망대가 되셨다.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의 파수꾼이 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지옥권세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이다. 우리는 이미 성공자이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성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을 때 최고의 성공자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참된 구원의 복음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고 참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을 때도 있다.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직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자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그러나 갈라디아 지역의 몇몇 사람들은 율법주의를 가지고 참된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었다. 이에 분노한 사도 바울이 보낸 복음의 편지가 갈라디아서이다.

## 1. 첫 번째로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이 많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 갈라디아교회에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 장 1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찌르나” 내가 여러분에게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아’라고 하면 기분 나쁠 것이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다.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참복음을 깨닫고 참 응답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1) 갈라디아서 1 장 6 절에 보면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1 장 6 절에서 7 절을 보겠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꾸어 이용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다. 그 대표적인 단체들이 신천지, JMS, 구원과 박옥수,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몰몬교, 제칠일안식교, 천주교 등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해서 성도들과 사람들을 교란시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성경과 복음을 악용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집단들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무리할 만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1 장 8 절에서 9 절의 말씀을 보겠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 당시 갈라디아교회에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것이 틀린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던 것이다. 갈라디아서 2 장 3 절에서 5 절을 보겠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도 우리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 그런데 할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구약의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우리는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신약에 와서는 제사, 할례가 필요 없어졌다.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이다.

(3) 사도 바울은 또한 예수님의 사도이면서도 복음적으로 행하지 않고 잘못 행동하는 대선배인 게바(베드로)를 책망했다고 말씀하고 있다. 즉, 이단적인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도 큰 잘못이지만 참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복음적으로 행하지 않는 태도도 책망받을 섞인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 장 11 절에서 13 절의 말씀을 보겠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저것이 섞이면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혼합주의라고도 한다. 신학교에서는 종교혼합주의라는 것을 말한다. 불교, 성경에서 다 가져온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을 때도 세상적인 철학도 들어왔지만 순수한 종교개혁적인 신학을 혼합시켰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혼합시키고 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성경을 세상적인 학문으로 혼합시키고, 성경을 믿지 않는 목사들과 교단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이 복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도 혼합되

어서는 안 된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성도이다. 구별되었다는 뜻이다. 세상과 영육 간에 구별된 자이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넘어지고 부족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영육 간에 온전해져야 한다. 이 방향을 알고만 있어도 어느 순간 나는 성장해 있을 것이다.

**2.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교회에게 주신 참복음의 내용들이다.**

갈라디아교회는 이 참복음의 말씀으로 70 현장과 237 나라를 위한 참복음의 땅대로 거듭나야 할 절대미션을 받았다.

(1) 첫 째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당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 참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이 갈라디아교회에 보낸 참복음의 사도라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 자신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이라고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랬지만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 담임목사라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와 관계가 안 좋으면 메시지전달이 안 된다. 여러분도 정운돈 목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목자라고 믿기를 바란다. 담임목사 뿐만 아니라 부교역자, 다락방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흑암이 꺾이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만남이 정말로 축복된 만남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3)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의’의 말씀을 가장 쉽게 정리해 놓은 아주 소중한 요절말씀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영혼구원, 천국)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석가모니, 붓다, 공자도 훌륭하지만 그 분들은 다 죄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죄를 짓는다. 육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지옥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가려면 죄를 하나도 지어서는 안 된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대속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는 것이다.

(4)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지금도 범죄자가 죽으면 ‘기소권 없음’이라고 하여 그 사람을 판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영적인 법이나 윤리, 도덕적인 세상 법으로는 결코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없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겠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세상적인 율법으로 우리가 죽어야지 사는 것이다.

(5) 이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 그 유명한 참복음과 그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다. 먼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설명 드리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구원, 거듭남, 대속) 그런즉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성령내주, 성령인

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세상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들의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그런즉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성령내주, 성령인도를 의미하고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위드, 임마누엘, 윈니스의 삶이다. ‘위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다. 여러분이 말씀이 중심이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된다. 그렇게 되면 못 할일이 없다. 3천 제자, 1만 제자, 10만 제자가 되어서 전 세계 못 할 일이 없다.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삶이다. 우리가 저도 되고, 뽀 맞아도 된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왕좌로 모셔서 참된 응답을 받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되어있다. 그래서 한 순간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따라오는 것이 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 9가지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이다. 이 9가지가 바로 사랑, 화평, 화평, 오래참음, 자비, 충성, 양선, 온유, 절제이다. 가만히 묵상해 보라.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한 번도 해 보지 못하고, 어디를 가든지 화평하지 못하고, 오래참지 못하고, 자비하지 못하고, 양선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고 뭐든지 거역한다. 온유하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하다.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나님 자녀이지만 주인을 바꿔야 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한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훨씬 편한 삶이다. 그 감격 속에 살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있다.

결론으로 오늘도 갈라디아서에 담겨 있는 성경적인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다.

1. Covenant(키버넌트), 언약과 복음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백성이 되었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들의 절대적인 비전은 237 나라와 5천 종족들에게 오직 예수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3. Dream(드림), 꿈이다. 만약 우리들이 모든 현장에 참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하여 24시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25시와 영원한 축복과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문제 앞에서 강단말씀에 조금만 집중해도 사탄의 나라, 세상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5. Practice(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이다. 이 참복음을 통하여 300 영접, 30 다락방, 3 지교회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무한대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란다.
-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일천만 제자를 세우는 참복음, 참믿음의 파수망대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 램턴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흔들렸던 참복음과 참믿음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